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5월 1일(금)  
--(윤력 3월 15일)--  
Пятница  
1 мая 2026 г.  
№ 17 (1218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일은 봄과 노동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민들의 행진.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사할린 주지사, 주민과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 만나

4월 28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민들과 개별적 만남을 가진 가운데 참석한 특수군사작전 참전자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들의 가족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장애를 갖게 된 참전자의 가족으로서 필요한 집안 개조 과정의 문제 해결, 저금리 대출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가정지원, 노후 주택으로부터 신속한 이주, 장애아 가족에 일자리지원, 질병으로 인한 가족들 지원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 러시아 국가방위군, 사할린에서 대규모 훈련 실시

사할린주에서 러시아 국가방위군 동부 지구 사령관 알렉산드르 레세트니코프 중장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공동지휘 아래 대규모 전술 및 특수훈련이 실시되었다.

목적은 지역의 위기상황 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방위군의 지역 통솔 및 협력 구축의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있었다. 훈련에 사할린 군부대와 하바롭스크, 연해주 특수부대 요원들을 비롯해 연방보안국, 내무국, 연방교도국 국경수비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훈련은 사할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해상, 지상에서 협동 공격작전을 수행하고, 무인기의 활용은 현장상황을 영상으로 계속 전송해 병력과 자산을 관리하게 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 모스크바, 쿠릴열도 투자 설명회 열려

지난 29일(수) 모스크바에서 '쿠릴 열도 투자잠재력 설명회'가 열렸다. 러시아 극동 개발부와 사할린주 정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역대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쿠릴열도 특구의 비즈니스 기회가 집중 소개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쿠릴 열도가 아태 지역 시장과의 접근성, 풍부한 자원, 독특한 자연환경을 갖춘 투자 적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쿠릴 전역은 무관세 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산 장비와 자재 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146개 구역이 참가한 '청소의 달' 총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청소의 달'행사가 마무리되어 한 달간 2만8,000명의 주민들이 도시 청소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 기업체, 학교, 유치원, 관리회사, 주민들이 적극 나섰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4월을 '청소의 달'로 선포하여 도심 곳곳에서 정기적으로 '깨끗한 금요일'을 실시하고, 시 전체와 전국 규모의 대청소의 날도 실시됐다.

이에 도심 146개 구역들의 공공장소, 주택가, 공터 등지에서 청소가 진행되었고, 3,000m³의 쓰레기가 매립지로 운반됐다.

(사할린주 정부 자료에서)

##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5월 1일 우리는 봄과 노동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날은 시작되는 따뜻한 봄기운의 기쁨과 우리 향토에서 이뤄지는 보람찬 사업을 상징합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의 생활의 질은 날로 향상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회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천의 주민들이 노후주택에서 벗어나 잘 정비된 쾌적한 주택으로 이주하고 있고, 새로운 교육, 의료, 스포츠기 관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우리 모두가 직접 매일 우리의 사할린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국과 우리 지역의 번영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기쁨과 강건함과 평안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사할린주, 북방 소수 민족 원주민 계속 지원

지난 4월27일(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주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의 대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036년까지 러시아 연방 북부 및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소수민족 원주민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지역의 정책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사할린주에는 님프족, 우일타족(오로키), 에벤족, 나나이족 등 4,294명의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전통적인 거주 지역은 오하, 노글리키, 티모브스코예,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스미르니흐 포로나이스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이다. 회의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소수민족 원주민이 행복하게 살며, 전통적인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고, 자체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사할린주 소수민족 원주민의 발전은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소수민족 거주지의 본래 환경보존, 전통적 경제산업 지원, 민족의 특성을 고려한 거주지 내 교육기관 확보, 언어의 다양한 발전과 보존이 계획되어 있다.

회의 의제로 소수민족의 출산율 촉진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사할린주 북방 소수민족 대표위원회 위원이자 사할린주 사회회의 의원인 예카테리나 코롤레와는 "2025년에 사할린주 소수민족 거주지 7개 지역에서 총 19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키 지역 위야흐투 마을에서는 지난 3년간 아이가 전혀 태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행복한 모성'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상당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소수민족 원주민 거주지에서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대표들과 공적인 만남 조성, 여성상담 의료진과 사회복지 대표자 초청 등 계몽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행복한 모성>기획에 소수민족 원주민 여성들의 더욱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독려하고, 소수민족 원주민 여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사할린주에는 여성의 임신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가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사할린주는 종합 사회복지 정책으로 50가지의 지원책을 구축한 러시아 내 몇 안 되는 지역들 중 하나다.

이러한 지원책을 이행하기 위해 매해 주 예산에서 90억 루블리 이상의 자금이 배정되고 있다. 2026년에 소수민족 원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의약품 공급의 혜택을 주고, 그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필요한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시킬 예정이다.

대표자위원회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어업에 원주민의 우선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논의한 가운데 어업을 위한 구역 이용자들에게 원주민들의 조업을 필수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주 수산부는 이러한 제안을 러시아 농산업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정부 자료에서)

##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30년의 역사,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에트노스' 한민족예술과 '에트노스',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뿐인 한민족 전통예술의 요람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는 사할린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CIS 국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학교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에트노스' 학교의 한민족예술과는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단 하나의 예술학교에만 있는 학과로서 1995년 문을 연 이래 한민족 문화를 널리 알려왔다.

1990년에 설립된 '에트노스' 학교에는 처음에 러시아 민속과만 있었다. 문화 분야에서 활약한 김수남 씨가 '에트노스'의 설립자이고, 초대 교장인 고(故) 나탈리아 에이지노와 선생님께 한민족예술과를 만들자고 제안하여, 그 제안으로 1995년 가을 새로운 학과가 탄생했다. 당시엔 전통 악기도 없었고,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찾는 것도 어려웠다. 김수남 씨가 초대 학과장을 맡았고, 그분이 은퇴한 뒤로는 신 울리아 선생님이 15년째 학과를 이끌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30주년 행사를 준비 중인 신 울리아 과장을 만나 학과의 현재와 30년의 여정 등 여러 이야기를 들 수 있었다.

1현재 한민족예술과의 학생 수는 5세~6세 유아 예비반을 포함해 약 130명이다. 본 과정은 8년제이며, 그 외에 단기과정도 생겼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단기과정은 유소년을 위한 전통 타악기반이다.

이 학과에서는 전통 악기·무용·노래 등 한민족 예술을 9명의 전담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 필수과목(피아노, 음악 기초 등)을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포함하면 모두 약 20명의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한민족예술과가 설립되던 당시, 이정자 선생님은 무용과 장구를, 정(체오) 나탈리아 선생님은 가야금을, 신 울리아 선생님은 아코디언과 가야금을 가르쳤고, 당시 과장이었던 김수남 선생님은 전통 문화와 예술 교육을 총괄했다.

이후 김 예브게니야 선생님(무용·한민족예술), 최정순 선생님(무용·전통예술), 김완순 선생님(단소·보컬)이 합류했다. 은퇴하신 이정자 씨와 김수남 씨를 제외한 모든 분이 여전히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사실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뒤 교사로 돌아온 제자가 4명이나 됩니다. 가장 먼저 1회 졸업생인 김 안나 선생님이 임용됐어요. 그녀는 전통무용과 현대댄스(K-팝)를 벌써 20년 이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오신 강 안나 선생님은 보컬교사로 활약하고 있고, 코르니예코 아르세니와 미야타 미소니는 아직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전통악기와 무용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신 울리아 학과장이 말했다.

제자 넷이 모교인 예술학교에 교사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이 '에트노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 학교의 학생들이 자주 '에트노스'는 제2의 우리집이다.라는 말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을 반증하고 있다.

한민족예술과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학과목에 대한 열정으로 창의력이 풍부하다. 이들이 준비하는 여러 형식의 발표회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큰 공연이나 음력설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자체 행사는 우리 교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많은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마침내 탄생합니다.” 라고 신 학과장은 말한다.

실제로 이들이 준비한 행사는 항상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때로는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객이 많이 몰린다. <더 보이스(Голос)> 쇼 프로그램, <사할린의 한식> 축제, 미인대회, 연극 등은 모두가 환호하는 멋진 행사로 추억을 남긴다.신 울리아 학과장은 공연 시 어떤 형식과 주제로 행사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 대부분에서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지지도 빠질 수 없다. 필요하면 행사에 함께 나서고, 바자회를 열며, 의상제작 등을 돕는다. 어떤 학부모님은 '에트노스'학교 출신이기도 했다.

'에트노스' 학교는 처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가운데 학교 선생님들이 평양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문 음악가들을 학교에 파견해 주기도 했다. 이 점을 에트노스 학교 측에서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직 이 학교에서만 북조선식 무용과 남한식 전통무용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다

2012년부터는 학생 150여 명이 전라남도 진도의 남도국립국악원에서 정기적인 연수를 받아왔다. 2주간의 집중교육은 평소 6개월 분량의 진도를 소화할 만큼 강도 높고 효과적이었다.

“인터넷 영상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호흡과 현지 선생님들의



**신 울리아 엔체로브나**  
1975년 사할린주 토마리시 출생  
·사할린 예술대학교 '민속 악기' 학과 졸업  
·사할린 국립대학교 졸업  
·서울예술대학교 전통음악과 석사 졸업  
·사할린주 명예교육자 칭호 수여자  
·사할린주 아동예술학교 최우수 교사 지역 경연 대회 우승 (2023년)  
·러시아 연방 문화부 장관 감사장 (2026년)  
·사할린주 주지사 감사장 (2024년)

손길, 그리고 한국의 자연과 공기가 함께하는 경험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학과장은 말한다.

올해도 '에트노스' 학생들이 3월에 남도국립국악원 연수를 다녀왔다고 전해졌다.

30년 역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사실 하나. 바로 '불꽃놀이' 타악기 팀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에 공식 초청되어 공연한 일이다. 러시아는 물론 세계 무대에 사할린 한민족예술과의 이름을 떨친 순간이었다. 신 과장은 “그때의 긴장감과 자부심, 아이들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에트노스' 한민족예술과의 교사와 학생들은 수많은 권위 있는 국제 및 러시아 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는 2022년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진이 심사한 한국 전통음악 국제 콩쿠르에서 대상 수상과 2018년 임방울 국악제(광주)에 초청 공연을 꼽을 수 있다. 그 국악

제에서 '에트노스' 학생들은 유일한 비전문가인 아동팀이었다.

또한 201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CIS 국가 사물놀이 경연에서 '태양' 앙상블이 1위를 차지했다.작년에는 '스파스카야 바슈냐' 축제의 일환으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의 공연은 모스크바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며 “강렬하고 눈부신 광경”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30주년 기념 콘서트가 다가오고 있다. 공연은 5월 6일과 12일,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펼쳐진다. 고대 전설을 모티브로 한 이번 무대는 현재 막바지 연습 중이다. 관람 이용권은 '쿨투라'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 울리아 학과장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하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며 여전히 시들지 않는 열정을 전했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칸틸레나>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및 도시 간 경연에서 대상 수상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 아동음악학교의 <칸틸레나>합창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민속창작센터에서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작품으로 성대한 공연을 펼쳤다.

칸틸레나 합창단은 1986년 '사할린의 선구자'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오랜 세월동안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의 명망 높은 합창단으로 성장했다. 러시아 공훈 문화활동가로서 합창단 지휘자인 왈렌티나 투투로와는 '칸틸레나' 합창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원들과 그들의 미래라고 여기고 있다. 칸틸레나 합창단은 활동 이래 합창단을 통해 2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을 배출했다. 합창단은 저명한 작곡가들 유리 투가리노브, 예브게니 크릴라토프, 블라디미르 시넨코 등과 여러 차례 협업을 해왔고,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을 비롯해 소치 올림픽 폐막식에도 참여했으며,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탄생 기념 일을 맞아 크렘린 궁전에서 열린 공연에서도 연주한 바 있다.

'칸틸레나'합창단이 창단 기념일을 앞두고 이번 제8회 시립 아동 및 청소년 합창단 합창대회에 출전해 우승하여 무대에 많지 않은 12명의 단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수상했다. 합창대회에는 사할린주와 하바롭스크 여러 도시들에서 32개 합창단들이 출전했다. 칸틸레나 합창단은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조만간 벨라루스로 순회공연을 떠날 예정이다.

### Хор «Кантиле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 40-летие и взял Гран-при городского конкурса

Хор «Кантилена»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метил 40-летие боль-

шим концертом. Выступление прошло на сцен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программе прозвуч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разных эпох и направлений. Коллектив создали в 1986 году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ахалинская пионерия». За эти годы он вырос в известный хор с соб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ей и традициями.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ллектива,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Валентина Тутурова считает, что главное в «Кантлене» — это люди и их судьбы. За время работы через хор прошли более 200 выпускников.

Коллектив не раз сотрудничал с известными композиторами, среди которых Юрий Тугаринов, Евгений Крылатов и Владимир Синенко. Участники хора выступили в Мариинском театр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Олимпиады в Сочи и пел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ремлевском дворце на концерте к юбилею Сергея Прокофьева.

Накануне юбилея «Кантилена» одержала победу на VIII открытом городском конкурсе детских и молодежных хор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Хор получил Гран-при, несмотря на небольшой состав — на сцену вышли 12 человек.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овали 32 коллектива из го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Хабаровска.

Впереди у коллектива новые план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антилена» отправится на гастроли в Беларусь.

### '아빌림픽'선수권대회 일환, 홈스크에서 처음 미취학 아동축제 열려

홈스크 지역에서 처음으로 5세-7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청소년과 아동'국민기획으로 개최되는 제11회 아빌림픽 지역 단계의 일부이며, 유치원 교육의 해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축제가 홈스크 지역 유치원과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은 생동감 넘치는 주제별 구역들로 나뉘었다. 아동들은 흥미로운 놀이를 통한 진로지도 덕에 상호작용의 과제들

을 풀어갔다. 홈스크시 드미트리 류브치노브 시장은 향후 진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유치원생들의 기쁨과 학부모들의 지원을 특별히 강조했다.

행사에 참가한 18명의 유치원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위한 새로운 행사장들에서 배우고, 익혔다. 특별히 장애아들의 연령과 능력을 고려해 개발된 놀이들이 진행되어 아이들은 미니관공을 하고, 직접 손으로 장식품을 만들며, 디지털기기로 처음 작업하는 법을 익히고, 미니 영화를 제작해보며,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법도 익혔다.

이날 축제에 참가한 모든 유치원생들에게 수료증과 과정 이수에 대한 선물도 증정하고, 교사들과 학부모, 사회단체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은 "아빌림픽은 모든 장애아들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유아 연령의 아동들에게 놀이를 통해서라도 자신을 전문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중요한 걸음을 던져 했다. 우리는 아동들이 뭔가를 시도하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장애를 지닌 아이가 도구를 손으로 집어 들고 길을 만들고 또는 사진을 찍으면서 아이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 Фестиваль для дошкольников в рамках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впервые прошел в Холмске

В Холмске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знакомства с профессией для детей 5-7 лет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 их семей. Он стал частью XI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Абилимпикс»,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8면에 계속)

### 세대를 잇는 맛

지난 4월 26일(일)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는 사무실 겸 문화센터에서 떡볶이 만들기 요리교실을 열었다.

이번 요리교실의 진행을 맡은 '레포' 레스토랑의 셰프 양 타티야나 안드레예브나는 섬세한 감각과 열정으로 참가자들을 한국 음식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날 어린이, 청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생한 대화와 경험을 나누며 전통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양 셰프의 세심한 지도 아래 참가자들은 재료 손질부터 맛과 상차림까지 떡볶이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익혔다. 매콤한 소스 향기, 주방의 온기, 우정 어린 웃음이 공간을 따뜻함과 아늑함으로 채웠다.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참가자들이 단순히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요리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아 직접 만든 따끈하고 향긋한 떡볶이를 맛보았다.

이번 마스터클래스는 단순한 요리 강습을 넘어 맛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전통으로 세대를 잇는 진정한 장이 되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한인연합회 제공)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흔들리며 피는 꽃 /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한량한 삶은 맛지만 요즘은 참 바빠도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알다가도 모를 게 인생이라고 한가해야만 하는 게 맞겠지만, 욕심은 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일 하나 더 늘었다고, 공부할 것들이 어느새 산처럼 쌓였어요. 호기심이 많은 삶이란 바쁠 수 밖에 없겠지요. 이제부터 어떤 스케줄을 줄여야 할지, 팔짱을 낀 채 고민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인생이란 그 누가 뭐래도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느낄 만큼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거겠지요. ‘피로사회’, 독일의 한병철 선생님이야 이토록 처절하게 피곤한 현대인이라,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꼬여버린 걸 테니, 그저 과부하 걸린 걸 거라며, 자책하지 말라 위로하시겠지만, 저처럼 미꾸라지마냥 유유자적 한가한 삶을 영위한 인생에겐 그런 잣대만큼은 어울리지 않겠지요. 나름 열정적인 젊음의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실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파노라마 스치듯 주변 이웃, 친구, 선배들의 삶을 떠올려보면 도종환 시인의 시선처럼 엄청 흔들리며 버텨낸 인생들 역시 수두룩합니다. 멋진 삶이죠. 대단할 하신 겁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분들의 삶이란 그 고군분투했던 지난한 기다림, 버텨낸 시간들마저 더 값져 보이잖아요. 꽃을 낫 놓고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향기에도 취하지만 화려하게 피면 그 근사한 대칭을 보면, 아름다움을 넘는 무언가가 늘 존재하는 것 같았거든요. 금세 시들어 유효기간 지난 팔죽처럼 말라 비틀어질 운명이겠지만,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뒤, 화려하게 그 자태를 뽐내는 시간만큼은 우주의 신비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종종 시간을 뺏기기 일수였지요.

바람은 불고, 비바람은 불지라도, 꽃은 어떻게든 버텨내 한 번 ‘짜안’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 화려하게 조명을 받은 뒤, 그 훌륭한 유전자들이 지구에 다시 흩날리고 싶었던 걸까요? 아주 단순하게 양자역학이나 생화학적인 유기체의 빛과 흙 속의 영양분, 수분이 만나 이토록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 인간에게 준 건 아닐 테니.

제가 드릴 순 없는 말이겠습니까만, 도종환 시인이 건네는 말이니 믿어서도 좋습니다. 지금 힘드시면요. 딱 하루만 더 참아 보세요. 물론 바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아, 이 무슨 유행가 노랫말 같은 이런 반복을 겪으신다면, 알듯 모를 듯 여러분들은 비바람 모두를 이겨 내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린 역시 버틸 수 있는 힘을 이미 얻었던 걸 테니. SNS를 너무 믿지 마세요. 부러운 사진, 소식들, 그거 다 ‘바람’입니다.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안타까운 몸부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런 건 안하고 대중대중 살거든요. 편해요, 정말. 잊지 마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랍니다.”

(편집 이철수)

(서울에서 허진원)

##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явился новый приход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26 апреля 2026 года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Кванджу открылся новый приход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Приход назван в честь Воздвижения Честного и Животворящего Креста Господня.

Кванджу является крупным горо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де проживает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русскоязычная община. Долгое время православные верующие эт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гиона

были лиш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регуляр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богослужениях из-за значительной удаленности существующих храмов Корейской епархии РПЦ.

Первую литургию в новообразованном приходе совершил архиепископ Корейский Феофан (Алексей Ким) и иеродиакон Нектарий (Лим).

(<https://t.me/saramkor>)



### 광복 80주년 맞아

##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영순

관리번호	95265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영순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미상		

###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

려의용군사회의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회의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였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중대원 김영순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도지

도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서울에서 허진원)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Здесь прекрасные люди и солнце светит иначе

Почти месяц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Позади — сопки, Охотское море, тёплые вечера в новом комфортном общежитии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и десятки маленьких открытий. Впереди — Москва, привычный ритм и немного грусти от прощания с островом. Четыре студентки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ГПУ) завершили стажировку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Третьекурсница Юлия Ликурцева и первокурсница Ася Мареева изучают японский язык. Второкурсницы Владислава Иванова и Регина Садыкова углублённо занимаются корейским. Все четверо приехали на остров на один месяц по программе академической мобильности. Пятая студентка (она не лингвист) к моменту интервью уже уехала с Сахалина. Кстати, обмен был двусторонним: пять студентов СахГУ в это же время отправились учиться в Москву.

Программу уже третий год реализует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вместе с Московским городским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Как отмечает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Эльвира Анатольевна Лим, изначально она задумывалас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студентов-востоковедов, но со временем география интересов расширилась.

«Цель программы — развит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навыков. Это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тудентов получить академический опыт в другом вузе по своему профилю», — подчёркивает Эльвира Анатольевна.

И опы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казывает: программа выходит за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рамки, привлекая всё больше желающих.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отъезда девушки заглянули в редакцию газеты, чтобы поделиться самым сокровенным. О чём 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Охотское море оказалось шире, чем они себе представляли. О том, что на сопки можно смотреть бесконечно — и они не надоедают. О том, что сахалинское кимчи удивительно вкусное, а главное — здесь удивительно открытые люди. Сахалинские ребята помогли им с первого дня: доводили до магазинов, подсказывали маршруты, терпеливо объясняли движения на тхэквондо.

Этот месяц стал для них временем познания острова, людей, университета. Все четверо сошлись в одном: такие программы должны продолжаться.

### Владислава Иванова, 2-й курс, специальность «Современная культур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Я родилась в Республике Башкортостан, на границе Европы и Азии — там, где горы, степи и бескрайние леса сменяют друг друга. Возможно, именно эта любовь к контрастам и привела меня к корейскому. Всё началось банально: музыка, дорамы, манхва... Но чем глубже я погружалась в популярную культуру, тем сильнее тянуло к традиционной.



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учила алфавит и вдруг поняла: хочу серьёзно. Корейский для меня — это мелодия. В нём нет иероглифов, есть простой и логичный хангыль, и это огромное облегчение для новичк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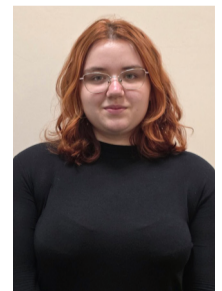
Когда я услышала о программе учёбы в СахГУ, сразу захотела увидеть остров собственными глазами. Здесь удивительный мир: спокойный город, сопки, Охотское море — никакой московской суеты. Мы ездили в село Охотское, смотрели на замёрзшее, но уже тающее море, гуляли по Корсакову. А ещё вместо физкультуры у нас тхэквондо. Местные ребята из секции оказались невероятно терпеливыми к нашим неуклюжим попыткам освоить движения.

Эта программа даёт уникальный шанс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нов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жить вдаль от дома и семь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овой средой и культурой. Система обуч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тличается от московской, но обе работают эффективно. Нет смысла вносить изменения, так как система выстроена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своего дела.

Несмотря на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Корею ещё не была. Хочу съездить, проникнуться менталитетом, погрузиться в языковую среду. Думаю, каждый студент-востоковед должен это сделать.

### Регина Садыкова, 2-й курс, специальность «Современная культур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я выбрала сердцем. Сначала были К-поп и дорамы, но потом меня затащило само звучание и необычная грамматик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европейскими языками корейский строится совершенно иначе — для меня это вызов и удовольств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Я — москвичка, и мой родной город дал мне многое: выставки, друзья, места, где можно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не выезжая за границу. Но всё равно настоящая Корея манила, и в январе 2026 года я наконец туда съездила. В основном по музеям и историческим местам. Это было незабываемо, и я хочу вернуться, потому что чем глубже узнаёшь страну, тем сильнее хочется ещё.



На Сахалин меня позв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о которой сообщила заведующая кафедрой. Я давно мечтала увидеть этот остров, и вот я здесь. Знаете, что поражает больше всего? Люди. Они невероятно открытые и всегда готовы помочь.

А ещё — сопки и море. Когда смотришь на них, появляется какая-то внутренняя свобода, приходят силы учиться и познавать себя. Я чувствую здесь гармонию.

Программа обмена — это бесценный обмен опытом. Мы знакомимся с методами преподавания, ана-

лизируем, что подходит нам, а что нет. Развиваются и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я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такие стажировки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СахГУ — прекрасное место,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ильные, никаких пожеланий,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ность.

### Юлия Ликурцева, 3-й курс (японский язык)

— Мой путь в японский начался с аниме. Мне нравилось, что язык звучит красиво, и я начала учить. Но прошло три года интенсивного изучения страны... Сейчас Япония не вызывает у меня тако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отклика, как раньше.



Для меня Сахалин был из разряда «несбыточное». Мечта, о которой не принято говорить вслух. И вот я здесь. Это мой первый приезд на остров. Больше всего меня впечатлили природа и люди.

Солнце здесь светит иначе — другого цвета. Меня это будоражит. Больше всего удивляют сопки и море. Люди живут среди этого великолепия: направо посмотрят — сопка, налево — море... Хочу обязательно вернуться летом.

Люди — отдельная история. Добрые, гостеприимные, было много милейших весёлых моментов.

Когда видишь картинки из интернета «где-то там, на Сахалине», никогда не думаешь, что сам окажешься там. А ты оказываешься, живёшь среди местных, учишься, переосмысливаешь что-то, набираешься опыта в изучении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и.

Пусть я сомневаюсь в выборе специализации, но в правильности этой поездки — нет.

### Ася Мареева, 1-й курс (японский язык)

— Я из Чебоксар, из Чувашии. И я очень люблю свою малую родину — за природу, за семейные сборы, за чувашские традиции и красивые песни. Сама я, к сожалению, говорю на чувашском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но он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В японском меня привлекли звучание и логичная письменность, которой нужно просто «проникнуться», чтобы перестало быть трудно. А больше всего в японском я люблю грамматику — стройную, логичную, с минимумом исключений.



Как только узнала, что можно поехать на Сахалин, сразу подала заявление. Мне хотелось посмотреть, как живут люди в совсем другом конце России: какую еду едят, какие у них традиции. Но то, что впечатлило меня больше всего, — это синтез культур. На Сахалине всё переплелось: японская архитектура, советские кварталы, корейские обычаи, русские традиции... В школах здесь изучают и корейский, и японский, и французский. Это потрясающее переплетение, которого я нигде больше не видела. Ради одного этого стоило ехать.

Я подружилась со своей группой. Ребята оказались невероятно отзывчивыми. Мне повезло. Я буду очень скучать по ним.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 учёбе в СахГУ —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как преподают историю, это было очень живо и увлекательно. А по языку... хотелось бы чуть больше пар, чтобы интенсивность была выше. Но это уже пожелание на будущее. Спасибо за этот месяц. Он был как короткий, но яр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другую вселенную.

(Виктория Бя)

## В ЦТАК рассказали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в Пхеньяне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Ф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о о серии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шедших 26 апреля в Пхеньяне с участием руководителя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Поводом стало открытие Мемориального музея боевых подвигов в зарубеж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риуроченное к первой годовщине завершения операции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йскую сторону представля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думы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глава Минобороны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другие члены официальной делегации РФ, сотрудники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КНДР.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руководящие кадры парт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КНДР, командиры крупных соединений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ойск зарубежной операции, члены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бойцов, строители музея, студенты и жители столицы.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ю ЦТАК,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на место церемонии Ким Чен Ын встретился с командирами бригад и батальонов войск зарубежной операции, вернувшимися на родину для участия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Он направил им тёплый боевой привет и отметил их вклад в демонстрацию боевого духа и доблести КНА.

Лидер КНДР назвал операцию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событи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армии двух стран «в одном окопе сражались плечом к плечу в защиту мира и суверенитета».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зачитал приветств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нём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поздравил участников с открытием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музея, поблагодарил Ким Чен Ына и всех, кто участвовал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а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подвиги 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навсегда останутся в сердце каждого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и». Путин также назвал мемориал символом дружбы и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двух стран.

Красную ленту в честь открытия музея разрезали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КНДР Но Гван Чхор и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Ф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Затем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погребения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участников зарубежной операции. Ким Чен Ын лично покрыл землей останки одного из павших бойцов — Ким Сон Чхора. Были произведены траурные ружейные выстрелы, к обелиску возложены венки от имени Ким Чен Ы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ссии, партийных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КНДР, а также вид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КНА.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Ким Чен Ын вместе с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е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осмотрел музей. Он возложил цветок к стене памяти с изображениями бойцов, ознакомился с фотоматериалами и экспонатами, посетил места 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и оставил запись в книге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В ней он написал, что, хотя жизнь павших бойцов «покрыта землей, которую они носили с собой в боях», их дух будет вечным вместе с защитенной ими честью. Записи в книге также оставили Володин и Белоусов.

Отдельно ЦТАК сообщило о встречах Ким Чен Ына с главой Госдумы РФ Вячеславом Володиным и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Андреем Белоусовым. Во время беседы с Володины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просил передать привет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и заявил, что напра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стремлении Москвы укреплять союзн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Володи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ыразил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им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На встрече с Андреем Белоусовым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НДР и впредь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литику России по защи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интересов. Стороны,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а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дальнейшего укрепления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Пхеньяне также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аград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КНА. По у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РФ командирам и бойцам войск зарубежной операции были вручены ордена Мужества. Награды вручал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Он заявил, что корей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доказали преданность Родине и внесли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освобождение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йский министр также передал Но Гван Чхору наград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погибших бойцов, и президентский указ.

Вечер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музея прошёл концерт памяти павших бойцов под названием «Звезды Родины». В программу вош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священные памяти участников зарубежной операци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композиции, а также российские музыка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Завершился концер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гимнами КНДР и России. После этого звенья самолетов ВВС КНА пролетели над улицей Сэбэль, запуская фейерверки.

Серия мероприятий завершилась ужином, который Госсовет КНДР устроил в честь российской официальной делегации. По оценке ЦТАК, вечер прошёл «в дружественной и теплой атмосфер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Началось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мощи уязвимым группам населения

27 апреля начался первый этап распределения экстрен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й для 70% домохозяйств с самым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а, чтобы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трудности, вызванные ростом цен на топливо из-за кризиса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Получатели базового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получают 550 тыс. вон (372 доллара) на человека. Члены домохозяйств,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грани бедности, и неполные семьи получают 450 тыс. вон (304 доллар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50 тыс. вон будут доступны тем, кто проживает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или в районах с сокращающимся населением. Первый этап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омощи продлится до 8 мая. Заявки можно подавать онлайн или офлайн. Средства можно перечислить на банковскую карту, предоплаченную карту, либо получить в виде ваучер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мощи на банковскую карту необходимо связаться с компанией-оператором карты, а выдача предоплаченной карты или ваучер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ме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Средства необходимо потратить до 31 августа для оплаты товаров или услуг мал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 годовым объёмом продаж до 3 млрд вон (2 млн долларов).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 приложения для доставки, а такж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исключены из программы. Второй этап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омощи начнётся 18 мая.

## Компании, вернувшиеся в РК, получат поддерж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кажет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компаниям, которые вернут производство из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на родину. Об этом заявил 27 апреля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К Ким Чжон Гва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пании-производителя косметики Kolmar Korea.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делает всё, чтобы возвращение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на родину и размещ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стали для них наиболее рациональным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вариантом, - добавил Ким Чжон Гван. Компания Kolmar Korea планирует вернуться в РК в этом году после закрыт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за рубежом. Она планирует инвестировать 187 млрд вон (126,5 млн долларов)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город Сэчжон.

## Суд увеличил срок заключения для бывшей первой леди

28 апреля Сеульский высший суд увеличил срок заключения бывшей первой леди Ким Гон Хи с 20 месяцев до четырёх лет по обвинению в коррупции. В судебном решен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Ким Гон Хи участвовала в манипулировании ценами на акции и принимала дорогостоящие подарки от Церкви Объединения. Адвокаты бывшей первой леди не согласились с приговором и готовят апелляцию. Группа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требовала для неё 15-летнего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обвинив Ким Гон Хи в манипулировании ценами на акции Deutsch Motors,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дилера BMW, получении незаконной прибыли в размере 810 млн вон (549 тыс. долларов) в период с 2010 по 2012 год, фальсификации результатов опрос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её мужа в 2022 году, а также в принятии двух сумок Chanel и бриллиантового ожерелья Graff от Церкви Объединения за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в оказании услуг. Суд снял с Ким Гон Хи обвинение 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результатов опрос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но оставил в силе остальные обвинения группы спецпрокурора. Помимо четырёхлетнего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бывшая первая леди оштрафована на 50 млн вон (34 тыс. долларов) и обязана вернуть предметы роскоши, полученные незаконно.

## Оксфор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открывает центр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ксфор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к октябрю этого года центр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чтобы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науч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и истории. Организация центра,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ят профессор Джин Кьер, Джеймс Льюис и Чи Ён Хэ, окончательно одобрена в марте руководств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С 1981 года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работает центр япон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 с 2008 года – центр кита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Фильм «Сальмокчи: Шепчущая вода» - лидер проката

Фильм «Сальмокчи: Шепчущая вода» (살목지) – лидер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инопроката три недели подряд. Т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ие выходные дни с 24 по 26 апреля его посмотрели 343.436 человек.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с момента премьеры 8 апреля составило 1 млн 873 тыс. человек. В центре сюжета – съёмочная группа, которая отправляется к водохранилищу Сальмокчи для пересъёмки панорамных кадров, однако обычная работа быстро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кошмар. Геро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необъяснимыми явлениями, странство начинается искажаться, техника выходит из строя, а попытки выбраться лишь возвращают их в исходную точку.

RKI

## В Южной Корее вновь заговорил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закупать нефть у Росс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фоне обостре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 рисков перебоев с поставками сырья вновь активизировались дискуссии о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закупок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Поводом стало успешное проведение ряда сделок по импорту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а также временное смягчение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со стороны США.

Как утверждает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Дейлиан", в конце марта компания LG Chem смогла импортировать около 27 тысяч тонн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причем сделка "едва не сорвалась" из-за проблем с расчетами.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време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минфином США на операции с российскими нефтепродуктами ряд крупнейших банков - в частности, JP Morgan, HSBC и Standard Chartered - отказались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счетах в долларах, опасаясь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В результате, как отмечает "Дейлиан", "единственной альтернативой стали расчеты в других валютах - рублях, дирхамах и юанях". Однако и этот вариант требовал официаль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американск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ведомства.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ких сроков исполнения контрак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через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при посольстве в Вашингтоне смогли добиться письменного разъяснения. По словам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процесса, "получить четкий ответ было крайне непросто", однако в итоге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оставила письменно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что позволило завершить сделку.

В Сеуле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данный случай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не только как разовая операция. Как пишет "Дейлиан", речь идет о создании прецедента: письменно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минфина США "является редким случаем" и может стать основой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валют в аналогичных ситуациях.

Параллельно на ситуацию повлияла и общая конъюнктура рынка. Как отмечает 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Мани Тудэй", из-за угрозы блокировки Ормузского пролива и роста цен на нефть поставки с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стали менее предсказуемыми, и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российская нефть становится решение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лючев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россий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о словам 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 логистика: если поставки с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требуют прохождения через Ормузский пролив и Южно-Китайское море и занимают более 20 дней, то из пор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сырье "может быть доставлено всего за 2-3 дня".

При этом масштабы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поставок остаются ограниченными. Как указывает "Мани Тудэй", даже достигнутые Сеуло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о импорту до 2,1 млн тонн нефти покрывают лишь около 6% годового внутреннего спроса, который превышает 33 млн тонн.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даже в случае полной реализации этих поставок "объем недотягивает даже до месяч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расли и эксперты все чаще говоря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олее гибкого подхода к закупкам сырья. Как отмечает эксперт Ан Се Хён, "импорт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уже перестал быть вопросом лишь экономии и стал вариантом обеспеч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фактором стала краткосрочность санкционных послаблений. Как подчеркивает "Мани Тудэй", текущая ситуация создает "окно возможностей",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компании стремятся максимально быстро обеспечить поставки, включая закупку спотовых партий, находящихся в море или готовых к отправк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мет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В Южной Корее сделали очередной шаг к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освоения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СМП).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МП" прошел слушания и был одобрен специальным подкомите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окумент должен быть принят парламентом. Параллельно активизирована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многопрофи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СМП.

Речь идет о проекте "Закона о Северном морском пути",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элементом курса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морской державы нового типа" 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Южной Кореи в будущем освоении СМП. Докумен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нормативной базы для развит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связанных отраслей. Эксперты и депутаты профильного подкомитета одобрили его, что открывает путь к принятию парламентом, после чего инициатива уже получит офи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закона.

Как сообщили корейские СМИ, законопроект вводит определение самого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и сопряженных с ним индустри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азработк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азового плана,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структур - Комитета по СМП и рабочего органа при нем.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сформировать отдельный штаб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дан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Инициатором законопроекта выступил депутат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Мун Дэ Рим. После внесения инициативы он провел серию обсуждений -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осемь форумов - с целью формирования широ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проработки деталей общей ситуации вокруг СМП.

Параллель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же запустило долгосроч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дготовки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 "эпох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За программу отвеч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исследование и разработка стратегии рассчитаны на период с апреля 2026 года по февраль 2028 года. На эти нужды будет потрачено 4 млрд вон (ок 2,7 млн долларов).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уют четыре профи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ключая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KMI).

В рамках исследова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как развит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изменит глобальную логистику и мо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а также определить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припортовых отраслей. Получе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базового плана,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го обсуждаемым специальным законом.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появление нового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коридора "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ить условия глобальной морской логистики", а значит, требует системной подготовки.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роекту нового порта на Чечжу, который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перевести в категорию объек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стратег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 его базе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узла, включающего логистически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и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компоненты. В частно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создание хаба по снабжению судов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м топливом, а также привлечение арктических круизных маршру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МП.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ластера с участием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центров, включая профильные институты по изучению полярны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позволит комплексно развива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дготовку кадров и промышленное освоение направл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СМП.

Параллельно Сеул переходит к практическим шагам. Ранее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планах уже в сентябре провести тестовый рейс контейнеровоза вместимостью 3 тыс. TEU по маршруту Пусан - Роттердам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Эт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начало практической отработки логист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СМП.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намерен провести консультации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чтобы согласовать условия прохода корейского судна через российскую часть СМП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ходе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 повторный тестовый проход судов из РК через СМП.

В процесс включился также 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нансовый сектор. В частности, крупнейшие региональные банки и финансовые группы, такие как BNK Busan Bank, уже формируют отдельные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 учетом расширения дискуссии вокруг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и перестройки глобальны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По информации BNK Busan Bank, в финорганизации стартовала аналитическая работа по СМП, которая охватывает т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как судоходство, порты, судостроение и техниче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флота, а также механизмы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этих отрасле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базирующегося в Пусане банка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именно этот мегаполис Южной Кореи назван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 гос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ключевым центром по част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Эксперты констатируют, что Сеул стал активно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формировать правов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ую и финансовую базу для участия в будущей конкуренции за маршруты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рассматривая СМП как одно из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олгоср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поддержку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региональный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еализацию Концепци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Ф до 2036 года.

По последним данны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4 294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таки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как нивхи, уйльта (ороки), эвенки и нанайцы. Местами и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являются Охинский, Ногликский, Тымовски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Смирныховский и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ы, а такж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Наша задача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жили счастливо,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ести традицио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сохранять свою культуру,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заседан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лан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считан на три года и направлен на сохранение исконной среды обитания этносов, поддержку традиционн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еспеч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в местах проживания народностей с учетом их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языкового многообразия.

В повестку заседания также был включен вопрос о стимулировании рождаемости среди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 В 2025 году в семи районах, где проживают коренные этнос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явились на свет 19 детей из числа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В селе Виахту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лет дети не рождались вообще. При этом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Счастливые материнства» и женщинам оказывают мощную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местах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миссию: организовать общественные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игласить врача жен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цзащиты, - отметила член Сове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егиона Екатерина Короле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держал идею о более активном вовлеч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в проект «Счастливые материн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м этносов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жут о доступных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выстроена система, которая сопровождает семью от планирования беременности до взросления ребенк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в которой социальный пакет насчитывает порядка 50 мер поддержки. На их реализацию ежегодно из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ляется более 9 млрд рублей. В 2026 году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и льготное лекарстве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что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их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и доступ к необходимым медикаментам.

Участники Совета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ме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иоритетного права этносов на традиционное рыболовство. Поступило предложение обязать пользователей участков для промыслового лова предоставлять коренному населению доступ для ведения промысла. Эту инициативу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направит в Минсельхоз Росси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дители все чаще пользуются удобной программой оплаты детского отдых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203 семьи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удоб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которая помога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летнее оздоровление детей без серьезных затрат.

Семьи, проживающи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огут вернуть 85% стоимости путевок в детски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Это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компенсации. Для семей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а также для семей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н составляет 100%. Прежде механизм компенсации был не очень удобным. Требовалось полностью оплатить путевку, собрать все документы, направить их в орган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и ждать перечисления средств.

—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емья»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нами задачу: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помощь была доступна не только на бумаге, чтобы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реально облегчали и упрощали жизнь людей. Поэтому мы решили избавить родителей от лишних хлопот, а семейные бюджеты от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нагрузок. Механизм оплаты путевок в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стал более удобным. Родителям достаточно оформить заявление в любом отделении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или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и». После эт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разу перечисляет организации нужную сумму. А родитель, если семья не относится к льго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плачивает только 15 процентов стоимости,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Новый механизм компенсации стал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м. В 2025 году более 1400 путевок были оплачены авансом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 по-

мощью этой услуги также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отдых 48 детей из семей участников СВО.

— Из 212 путевок, оформленных в этом году, 203 приобретены с помощью аванса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переди лето, значит, спрос на путевки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 эту услугу еще более увеличится. Радует, что механизм работает в интересах людей. Он простой, понятный и позволяет не откладывать решение об отдыхе ребенка,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Программа охватывает популярные местны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Восток», «Юбилейный», «Чайка», «Лесное озеро» и санаторий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а также учреждения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Разница только в способе получения помощи. Для тех, кто отдыхает в мест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доступны и аванс, и компенсация. Если ребенок едет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компенсация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олько посл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 Росгвардия провела на Сахалине масштабные уч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ые тактико-специальные учения,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под объединенным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андующего Восточным округом войск национальной гвард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Александра Решетникова 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Целью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а проверка готовност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гвардии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труктур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 при осложнении оперативной обстановки в регионе. В учении был задействован мощный силовой компонент. Помимо сахалински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 маневр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отрудники ОМОН и СОБР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ев,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управлений ФСБ, МВД, ФСИН и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Сценарий учений включал отработку четырех задач: обезвреживание вооруженных преступников на объекте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иск и нейтрализация диверсионных групп, совершивших попытку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 объект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специальная операция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заложников в здании и пресечение массовых наруш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ласт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наблюдали за ходом активной фазы учений. Высоку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действий показал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и защищенных каналов связи. Непрерывная передача видеоданных с мест событий позволила оперативно управлять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ходе учений было уделено специфик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ойцы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й отработывали действия в условиях прибрежной зоны и на сложных участках местности. Слаженность действий был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а как при штурмовых операциях на суше, так и на плавсредствах.

Подводя итог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тметили, ч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 слаженность между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является гаранти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Поставленные цели достигнуты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ч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 Итоги приема губернатора: ветерану СВО адаптируют квартиру, маму ребенка-инвалида устроят на работ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личный прием граждан. За адресной помощью обратились участники СВО и их близкие, а также семьи, оказавшиеся в слож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Елена Терновская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просила ускорить работу подрядчика, который адаптирует семейную квартиру под нужды ее супруга – ветерана спецоперации.

— Мой муж – инвалид второй группы, передвигается на коляске. В 2025 году, после просьбы расширить межкомнатные проемы, к нам приехал подрядчик. Рабочий установил три двери, оставил строительный мусор и больше не появлялся. Наличники до сих пор так и не сделали, - посетовала Елен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требовал о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взять на контроль работу исполнителя и завершить ремонт в квартире участника СВ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роме того, ветерану окажут современную протезно-ортопедическую помощь.

— В регионе заработала мастерская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протезов, где участники спецоперации 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и реабилитацию.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поборемся за будущее вашего супруга, попробуем поставить его на ног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я даю министерств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Другому участнику адресного приема, также ветерану спецоперации Евгению, помогут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кредитную историю и получи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ипотеку по льготной ставке под 2%. Регион готов предоставить бойцу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оплату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а волонтеры ипотеки – подобрать подходящую квартиру.

За помощью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обратился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Зинфир Х. Он рассказал, что не может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потому что все время посвящает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и женой.

— У жены онкологическое заболевание, инвалидность, ей тяжело ходить. У нас двое детей. Сыну девять лет, дочери два годика. На прошлой работе мне сказали, что я часто хожу на больничные, - поделился мужчина.

Област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соцзащиты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подобрать главе семьи подходящую работу и помощника по уходу за супругой. Такж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для жены Зинфиры назначен курирующий врач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диспансере, у которого супруги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разъяснения о ходе лечения.

Участницей личного приема стала и Наталья Б. из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стоит в очереди на получение жилья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найму, но пока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фонде нет свободных квартир.

— Женщина развелась с мужем, воспитывает ребенка и продолжает трудиться. Пока она ожидает муниципальное жилье, ей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арендную квартиру. Кроме того, Наталью нужно пригласить в регион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Борьба с бедностью» и предложить вариант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 дал наказ глава области.

После встречи с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помощь окажут и жительниц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Яне Ш. Молодая мама воспитывает ребенка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не может выйти на работу и с трудом справляется с платежом за съемную квартиру. Под патронаж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защиты девушку устроят в социальное или муницип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сл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обрать ей арендное жилье.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пуск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сотрудники предприятий

На двухдневн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е собрали портфель научных проектов, работающих в интересах бизнеса. В приоритете – шельф и водород,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и глубокая переработка аквакультуры, беспилотные комплексы 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 работе сесс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и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база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Подготовка кадров должна отвечать запросам работодателей –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ГУ уже получил статус первог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порного вуза «Газпрома».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крупнейшая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высок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подготовке на Сахалине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своих проектов. А для студентов это означает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 акцентом на практику и решение реальных задач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оздается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Первый объект – комфорт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00 мест – уже обживает новоселы.

— Это не просто строительный успех. Это колоссальный ресурс,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оставались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Остается дело за малым – дать молод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интересную работу с достойной зарплатой.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аботаем вместе с индустриаль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Есть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е отрасли для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 нефтегазовый 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так и новые – водородная энергетика,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беспилотные системы.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вать их кадрами и научной базой – этим занимается университет. А работодатели должны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вузом, чтобы ребята выпускались готовыми сотрудниками предприятий,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СахГУ планирует принять 1200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500 ребятам, которые не пройдут на бюджет, из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субсидируют половину стоимости первого года обучения. Чтобы абитуриенты успешно преодолевали вступительные испыт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на школа «СахалинТех.Алаид». В мае там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нефтегазовая смена.

Сахал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аращивает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базу. Тольк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уз создал 12 научных лабораторий и привлек 50 науч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 У нас работает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Идет оснащение нефтегазовой химико-аналити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и. Действуют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Газпромбанка» и центр ИИ «Сбера». В этих лабораториях ученые вместе со студентами решают не абстрактные задачи, а ведут разработки,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ы ведущ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СахГУ Алексей Огнев.

Среди таких разработок – виртуальный тренажер подводного добы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шельфе, электрохимические генераторы на водородном топливе и беспилотный катер для доставки грузов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аквакультуре освоили выращивание трепанга, создали «лабораторию здоровья» для лососевой молоди, испытали ультразвуковую приманку для краба и технологию переработки рыбьих голов в коллаген.

Отметим,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сотн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уки и бизнеса. Их разделили на четыре группы: шельф, водород, аквакультура, а также ИИ и беспилотники. В формате мозгового штурма они решали, какие еще научные разработки необходимы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불편한 재외선거 바꿔주세요"

재외선거 개선 캠페인 온라인서 공감 확산  
재외동포청, 캠페인 영상 게재 열흘 만에 조회 수 18만 넘어  
"1박 2일, 1600km 달려야 가능한 투표"...

제도 개선 요구 이어져

###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최근 공개한 재외선거 관련 영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동포on'에 게재한 '투표하기 참 힘들다!' 영상은 열흘 만에 조회수 18만을 넘어서며 온라인에서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영상 링크 : [https://youtu.be/w3p6KJC6dVk?si=uDiyPdTizca\\_5duh](https://youtu.be/w3p6KJC6dVk?si=uDiyPdTizca_5duh)

해당 영상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을 국내 유권자의 투표 여정과 비교해 보여준다.

태국 푸켓에서 출발해 밤새 800km를 달려 투표하는 재외국민 가족과 800m 거리를 산책하듯 걸어서 투표하는 국내 유권자와의 투표 환경을 나란히 영상으로 보여주고, 불편한 재외선거 환경으로 인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의 마음을 전한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고 '거리는 달라도 한 표의 무게는 같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영상은 푸켓에서 살고 있는 한 재외국민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푸켓에 거주하는 정철인 씨는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방콕까지 800km를 달려 재외선거에 참여했다. 푸켓에서 방콕까지 왕복 거리는 1600km로, 서울과 부산을 4번 오가는 수준이다.

정씨는 '동포on'채널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재외선거 제도가 바뀌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외동포청이 사회관계망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도 이와 비슷한 체험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 번의 투표를 위해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두 개의 국경을 넘고, 중동 사막을 가로지르고, 2박 3일 여행 계획을 짜고, 임신 상태에서 아이까지 데리고 투표소로 향했던 다양한 사연이 재외동포청 사회관계망 게시판을 빼곡히 채우며 눈길을 끌고 있다.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제도와 기술을 통해 투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멀리 타국에서도 고국을 생각하는 동포들의 마음이 무관심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주이도)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꼭 실행이 되기를..." (neofunky00)

"부디 재외국민도 가벼운 산책처럼 투표할 수 있기를" (honey119-rbb)

"참정권이 아니라 대장정이네요. 애국심 테스트는 이제 그만" (짜타-k6h)

청장은 "이런 험난한 투표 여정이 더 이상 미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의 선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기관이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는 약 197만 명(2025년 기준)이며, 이중 약 10만~20만 명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가장 높았던 지난 대선에서는 약 10%를 기록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 재외동포청, '비정상적 정상화' 에 동포 목소리를 담는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뿌리 뽑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26.3.6.)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고,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불편함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 동포청 직원과 ▲ 국민·재외동포 제안 등 양방향으로 발굴한

과제는 내부 위원 4명과 국내·외 동포 포함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검토한다. 특히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과 동포청장 SNS를 통해 정책 대상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발굴한 과제는 1차 검토 간담회와 집단 토론회를 통해 대표 과제로 선정한 후 5월 8일(금)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집중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 초코파이, 전세계 3개중 1개는 러시아서 팔렸다

오리온, 현지 매출 2천억 돌파하며 '승승장구' 수박 맛 등 국내에는 없는 12종 출시...  
다양한 현지화 전략 2027년 신규 공장 완공 목표로 시장 지배력 강화

한국의 대표 간식 '초코파이'가 러시아 시장에서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국민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구권 브랜드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를 'K-푸드'의 원조 격인 초코파이가 완벽히 메운 모양새다.

지난 4월 23일 국내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리온 초코파이의 지난해 러시아 현지 매출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온 초코파이의 국내외 전체 매출액이 약 6천740억 원임을 감안하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초코파이 3개 중 1개(약 32%)가 러시아에서 팔린 셈이다.

### '현지화'와 '문화적 접점'이 만든 기록적 성장

초코파이의 러시아 진출 역사는 길다. 1993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처음 수출된 이후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후 성장 속도는 가파르다. 1천억 원 돌파에 6년이 걸렸고, 다시 그 두 배인 2천억 원을 기록하기까지는 단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같은 성공의 일등 공신으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꼽힌다. 오리온은 러시아 현지인들이 베리류 과일잼을 즐겨 먹는다는 점에 착안해 라즈베리, 체리, 블랙 커런트 등 해외 국가 중 가장 많은 12가지 맛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국내에 없는 수박맛까지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러시아 특유의 '차(茶) 문화'와의 조화도 한몫했다. 추운 날씨 탓에 뜨거운 차를 상시 복용하는 러시아인들에게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어우러진 초코파이는 차의 쓴맛을 중화하는 최적의 디저트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1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초코파이를 먹는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며 얻은 홍보 효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전쟁 중에도 '플가동'... 2027년 신공장 건설로 박차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오리온은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철수했으나, 오리온은 현지 생산 기반을 유지하며 오히려 높아진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 현재 러시아 내 5곳의 생산 라인 모두 플가동 중이다.

오리온은 높아지는 수요를 감당하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러시아 트베리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코리아 버거'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명실상부한 'K-푸드'의 대명사가 된 초코파이가 향후 러시아 시장에서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 [우리말로 깨닫다]

## 동시다발(同時多發)의 현장에서

어떤 한자어는 해석을 달리 할 때마다 다른 느낌과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며칠간 머릿속에 맴도는 사자성어가 동시다발(同時多發)입니다. 같은 때에 많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요즘의 사건은 동시다발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겁습니다. 행복한 동시다발이면 좋겠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의 동시다발은 사양하고 싶네요.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동시에 여러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로 동시다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발'을 일어난다고 해석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발생(發生)'과 같은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의 현장은 정신이 없습니다. 주로 좋은 일은 동시다발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귀찮은 일이나 복잡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동시다발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일의 처리가 안 되는 식은땀 나는 현장입니다.

이상하게 힘든 일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고, '얽힌 데 뒤틀린 격'이라는 속담도 자연스럽습니다. 기쁜 일이 함께 생기면 우리는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합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꽃 수를 놓는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아무튼 나쁜 일도 기쁜 일도 하나씩 생기면 좋겠습니다. 숨도 돌리고, 기쁨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싶네요.

동시다발을 달리 해석하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을 '쏘다'로 해석한 겁니다. 발(發)이라는 한자에 '활 궁(弓)'이 들어있으니 쏘다는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발사(發射)'라는 어휘가 곧바로 떠오릅니다. 동시다발로 쏘는 것은 무섭습니다. 최근의 전쟁은 동시다발의 현장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댁니다. 그 중 하나는 맞겠지 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방어용 미사일도 동시다발입니다. 일대일로 맞힐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겠지요. 실제로는 여러 발로 한 발의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동시다발이 동시다발의 피해를 부르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동시다발이 아름다운 현장은 꽃피는 봄입니다. 발(發)이라는 한자는 '떨 발'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꽃이 피어나는 것이 발입니다. 최근에는 날씨의 변화 때문인지 꽃이 한꺼번에 동시에 핍니다. 예전에는 산수유가 피고, 목련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폈는데 지금은 모두 한꺼번에 피었다가 한꺼번에 집니다. 제가 근무하는 경희대학교는 봄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목련(木蓮)은 맑고 고운 자태로 나무의 연꽃이 됩니다. 벚꽃이 피면, 경희는 그대로 벚꽃 동산입니다.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꽃이 동시다발이어서 화려함은 극치를 달리지만, 떨어지는 아쉬움은 오히려 큼니다. 물론 꽃 대신 푸르름이 그 자리를 빛 내기는 합니다.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花時)'라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푸르름이 꽃을 이기기도 합니다. 민요 사절가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봄이 짧게 왔다가 가는 것을 빗대어 신록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푸른 날은 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끝자락까지 길게 계속됩니다. 우리 삶도 그러하겠지요. 푸른 날이 오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주까지 한창이던 꽃이 이제 바람과 함께 떨어지고, 그 속으로 새순이 돋습니다. 신록예찬(新綠禮讚)이 절로 나오는 계절입니다. 한 번 더 꽃샘추위가 다녀가면 더 푸르러질 겁니다. 우리의 꽃다운 시절은 가고, 추위도 지나갑니다. 그래도 꽃은 꽃으로 즐기고, 푸르름은 푸르름으로 즐기면 좋겠습니다. 추위라고 나쁠 건 없습니다. 꽃을 시샘하는 추위야말로 더욱 그러하지요. 꽃이 핀다는 뜻이니깐 말입니다. 집 안이 아니라 밖으로 한 걸음 더 움직이는 하루이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자연(自然)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소서.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 (2면의 계속)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Года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об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естиваль провели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в местных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центр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омещения разбили на яркие тематические зоны. Дети решал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задания,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профорientацио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увлекательной игрой. Мэр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отметил радость дошкольников, сделавших первый шаг навстречу профессии, и поддержку их родителей.

18 участников осваивали на площадках новые для себя роли.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них разработали игры, учитывающие возраст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ети проводили мини-экскурсии, создавали украшения своими руками, осваивали первые навыки работы с цифр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снимали мини-фильмы и устанавливали дорожные знаки.

Каждый дошкольник – участник фестиваля получил сертификат и подарок за успехи. Педагогам, родителям и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вруч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Абилимпикс»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каждый может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Сегодня мы делаем важный шаг: даем ребенку шанс уже в дошкольном возрасте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мастером, пусть даже в игре. Мы учим детей не бояться пробовать, ошибаться и снова пробовать. И когда ребенок с ОВЗ берет в руки инструмент, строит дорогу или снимает кадр, в его глазах загорается тот самый огонек, ради которого мы и работаем», — заключи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이것이 우리한테는 가족적인 것>경연 결승에 사할린의 파블로브와 타라소브 가정 출전

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홈스크와 코르사코브에 사는 다자녀 가정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500만 루블리의 주요 상

금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대통령 플랫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가족적인 것> 경연의 준결승전에서 극동연방관구의 12 가정이 우승하여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중 사할린의 파블로브와 함께 타라소브의 가정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각각 홈스크와 코르사코브에 사는 다자녀 가정으로 5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부모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이 경연에 참가한 가정들은 경연과정으로 예술적, 스포츠, 러시아 '즈나니예'단체가 제공하는 '즈나니예(지식).이그라(놀이)'퀴즈대회를 포함한 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부 과제는 2차 경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러시아의 문화적 코드와 관련이 있었다.

준결승전 프로그램은 <가족이 되는 것>을 주제로 했다.

결승전에 출전하게 된 가정들은 "우리는 우승을 예견하지 못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 모든 가정들은 긍정적이고, 친절하여 경쟁의식이 느껴지지 않았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알게 된 것이 우리를 우승하게 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준결승의 우승자들은 오는 여름에 모스크바로 가서 다른 지역들의 출전 대표자들과 함께 주요 상금으로 주거 개선을 위한 500만 루블리 상당의 60개 상품권이 놓인 최종 우승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경연의 결승전은 2026년 6월 8일 가정, 사랑, 충실의 날에 진행된다. 또한 결승에 진출한 모든 가정들에게는 러시아 내 가족여행을 떠날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겐 가족적> 2차 경연 참가에 82개 국가에서 살고있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 89개 지역에서 19만6,576 가정 - 총 72만 6,191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이 경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가정> 국민기획의 일환이다.

### Семья Павловских и Тарасовых с Сахалина вышла в финал конкурса «Это у нас семейное»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из Холмска и Корсакова, воспитывающая пятерых детей, поборется за главный приз —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Победителями полуфинала конкурса «Это у нас семейное»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тали 12 семей из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их числе — семья Павловских и Тарасовых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из городов Холмска и Корсакова воспитывает пятерых детей, родители находятся в браке более двадцати лет.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рганизаторов.

Участники успешно выполнили серию творческих, спортивных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заданий, включая викторину Знание.Игра от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Знание». Часть заданий была связана с культурным кодом России — ключевой темой второго сезона. Сама программа полуфиналов посвящена теме «Быть семьей». «Мы не ожидали победы, очень рады, эмоции нас переполняют. Все семьи позитивные и добрые, не чувствуются конкуренции. Именно общение, знание друг друга помогло нам выиграть. Быть семьей — это любить, уважать, быть сплоченными», — рассказали финалисты конкурса.

Летом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финала поедут в Москву, чтобы вмест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ругих округов побороться за главные призы конкурса — 60 сертификатов по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пройдет в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 8 июля 2026 года. Все финалисты смогут отправиться в семейные путешествия по России.

Всего на участие во втором сезоне конкурса «Это у нас семейно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726 191 человек — это 196 576 семей из 89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82 странах. Конкурс — ча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емья», инициатив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p> <p>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